

天賜洪福



하늘이 내린 큰 복 | 2022년 07월 09일 제 132-2호 www.minghui.org 진상을 알아 길상을 얻다

뉴욕 홍수에서 목격한 신적 (神迹)

글 / 허평 (何峰, 뉴욕)

홍수로 뉴욕에 거주하는 작가의 지하실이 물에 잠겼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사경에서 벗어났다. 3일 후에야 물이 빠졌다. 작가는 소중한 서책을 담아놓은 상자가 늘 마음에 걸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책을 담아놓은 상자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2021년 9월 1일 뉴욕에 하루종일 큰 비가 내렸다.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빨리 일어나요, 집에 물이 들어와요!”라고 외쳤다. 살펴보니 물이 뒷문에서 방으로 흘러들어왔다.

내가 사는 곳은 뉴욕 키세나 공원 인근에 있는 집 지하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책과 그림이 있었고 많은 책을 바닥에 놓아뒀다. 나는 즉시 책을 소파와 책상 위로 옮기고 대야로 물을 퍼냈다.

그러나 갈수록 물이 차올랐고 앞문의 하수도가 이미 막혔다.

마지막 순간에 사경에서 벗어나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내가 뒤 돌아보니 물이 방으로 확 밀려들어 왔다. 앞쪽 문을 닫았으나 뒤쪽 문이 물에 무너졌다.

대략 3초 사이에 내 방 전체가 물에 잠겼다. 1초 동안 물이 내 허벅지 부위까지 불었고 2초 만에 거의 어깨에 이르렀으며 3초는 최후의 1초였다. 물이 천장

까지 차오를 찰나에 나는 왼손으로 앞문 유리를 깨뜨렸고 물은 내 귓전을 스치며 깨진 유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문 위에는 두 개의 유리만 있었고 나는 왼손으로 두 번째 유리를 깨뜨렸는데 흘러나가는 물이 내 허리까지 내려왔다. 나는 아주 작은 문의 삐죽삐죽한 유리 사이로 탈출했다.

위층 집주인이 사는 1층 거실에 와서야 우리 집 입구가 모두 잠겼으며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도 모두 지붕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사는 지하실은 즉시 물에 잠겼고 나는 마지막 1초에 살아나왔던 것이다.

아무런 손상도 없는 상자에 담긴 대법 책

셋째 날이 되자 물이 다 빠졌다. 나는 손에서 많은 피를 흘려 몸이 아직 허약했으나 책 상자 하나가 염려됐다. 거기에 파룬따파 사부님의 설법 40여 권이 들어있었으며 책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매우 걱정됐다.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 온통 난장판이었다. 폐허 속에서 나는 마침내 그 책 상

자를 찾았다.

이는 천제서점에서 구매할 때 포장한 종이 상자로 덮개는 밀봉하지 않았다. 열어보니 책 상자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야말로 멀쩡했다. 정말로 신적 (神迹) 이었다! 그 찰나에 나는 깨달았다. 일체는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대법만이 유일하게 진실했다.

위험한 순간에 진언 (真言) 을 염하다

언론 보도에서 이번 홍수로 적어도 1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1명이 지하실에 거주했다.

내가 손으로 깨뜨린 유리는 원래 매우 단단했다. 사경에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1초에 사실 나는 물에 완전히 잠겨 이미 힘이 없었다. 신기한 것은 손으로 문의 유리를 깨뜨릴 때 그 유리가 뜻밖에 쉽게 깨진 것이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했다. 매우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외웠는데 마음에서 저절로 나왔다. 사실은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이다!

기쁨과 감사

많은 그림과 대량의 작품이 모두 파괴됐고 수백 권의 책도 전부 훼손됐다. 친구들은 날 보러 와서 말했다. “아, 그간 심혈을 기울인 이렇게 많은 작품이 다 망가지다니, 우리 모두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해.”

나는 마음 아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나는 즐거웠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확은 내면의 수확이었고 생명을 다르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법 사부님께 이런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일한 소원이라면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호주로 이민 온 후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낸시는 중국에 있을 때 대학교 아파트에서 살았다. 젊고 유망하며 재능이 넘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있었으며 영원한 사랑을 굳게 맹세한 연인도 있었다. 또래보다 몇 배 넘는 우월한 삶을 살았다.

기공 애호가였던 낸시의 아버지는 많은 기공학습반에 참가했고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했다. 아버지가 《파룬궁(法輪功)》 책을 그녀에게 소개했을 때 낸시는 일반 기공이라 여겼다.

1 분신자살 거짓말을 믿어 불운을 만나다

2001년 1월 23일, 베이징 CCTV의 '뉴스 연합보도(新聞联播)'와 '초점취재(焦點訪談)'에서 방송한 '천안문 분신자살'로 파룬궁에 대한 딱딱한 선전이 작용을 일으켰다. 낸시는 말했다. "저는 TV에서 방송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낸시는 아버지에게 파룬궁을 연마해서는 안 되며 위험하다고 말했다. 얼마 후 낸시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경찰이 아버지에게 다시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라는 상황을 봤다. "아버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셨습니다. 경찰은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낸시는 아버지를 설득해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했다.

뜻밖에 그 후에 낸시의 삶이 급변해 불운이 그녀를 감쌌다. "우선 저를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며 함께 분투해온 남편이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 단호히 저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일본 정보통신기업은 경제위기를 겪은 후 매일 감원했고 수입도 단번에 줄었습니다. 몸에 영문도 알 수 없이 문제가 생겨 식은땀이 나다가 현기증이 나고 몸에 힘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 호주 친구의 말에 매우 뜻밖이라고 느낀다

2004년 낸시는 기술 이민으로 호주에 온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따라서 호주에 이민을 왔으며 아이를 돌봐주면서 한편으로 호주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 편히 수련했다. 그러나 낸시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 진상을 알리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11년 7월 말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그녀

친구에게 준 사실을 알았다. 친구의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친구에게 책을 선물한 것을 알게 된 낸시는 매우 화가 났으며 친구 집으로 달려가 만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는 "우리 아버지가 네게 《전법륜》을 줬어? 너 절대 읽지 마"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낸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는 그녀에게 "《전법륜》을 봤어. 매우 이치가 있더구나. 나는 지금 그 다섯 세트의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다.

낸시는 매우 뜻밖이어서 생각했다. '망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믿으면서 헤어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 친구까지 빠져들었구나. 나는 방법을 생각해 그들을 구해야 해.'

3 《전법륜》에서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하여 낸시는 직접 《전법륜》 한 번을 다 보았다. 그런데 본 후 그녀는 이 책이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며 왜 이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진선인을 행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을 알았다. 책에서 파룬궁 수련자는 살생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했으며, 중공의 선전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물론, 책에서는 '정치를 하는 것'에 관련된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단번에 낸시는 파룬궁에 갖고 있던 편견이 철저히 깨졌다.

그 무렵 낸시는 이미 한 살과 네 살 된 두 아이가 있었다. 매일 쉴 새 없이 바쁜 집안일에 책을 볼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낸시는 집안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잠든 후 전등을 끄고 잘 준비를 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막 앓던 순간 갑자기 《전법륜》 책이 떠올랐고, 정말 좋은 책이니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념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순간



낸시

적으로 그녀는 눈앞이 한 번 밝아지더니 다른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하나의 무릉도원이었습니다. 햇살이 빛나서 아름다웠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향기로웠습니다. 춤지도 덤지도 앉았고 모든 것은 겪어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때 또 멀리서 다른 한 시공이 제 앞으로 가까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부지불식간에 이 공간으로 진입했고 신체는 단번에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굽어보니 대지는 끝없는 산맥으로 길게 이어졌고 온통 생명력이 흘러넘쳤으며 공기는 매우 깨끗하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공중에서 비행하면서 산골짜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몸소 《전법륜》에서 말한 다른 공간을 체험한 낸시는 말했다. "저는 파룬따파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정법이며 제가 찾던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부터 낸시는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4 수확, 이해와 기대

파룬궁 수련은 낸시의 가장 큰 수확으로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몸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몸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는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각종 갈등에 부딪혔을 때 더는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았으며 더욱 높은 경지에서 일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은 이로써 풀어졌고 저라는 이 생명이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왜 아버지가 계속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이처럼 좋은 것은 모두와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낸시는 불법(佛法)은 얻기 어려우며 정법(正法)을 구하기란 더 어렵다며 자신이 겪은 경험이 다른 중국인에게 다소 계발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사람들이 《전법륜》을 찾아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다.



大法으로 고향에서 구도되다

글 / 밍둥양 (明冬阳, 중국)

내가 이번 생에 겪은 일은 큰 충격의 연속이었다. 살아있는게 고통이었고 눈물이 그칠날이 없었다. 법을 배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인생의 참뜻을 깨닫게 됐다. 지금 나는 가장 행복하다.



내가 이번 생에 겪은 일은 큰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치질 않는 난에 눈물마저 마르다

난 10여 살 때 뇌막염에 걸려 생명이 위독했다. 뇌막염에 걸리면 골수를 뽑아 검사해야 했는데 골수를 뽑으면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다. 아버지는 병원장과 아는 사이여서 일단 골수를 뽑지 않고 뇌막염을 치료하고, 문제가 생겨도 병원 측에 따지지 않기로 했다. 결과 기적같이 좋아졌고 후유증도 남지 않았다.

스무 살쯤에는 대지진으로 가족을 모두 잃어 눈물이 말랐다.

마흔 살쯤에는 또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큰딸이 시댁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까무러쳤다.

게다가 전신에 병이었다. 노이로제, 저혈압, 빈혈, 인후염, 유선 증식이 입파에까지 미쳐 매우 아팠다. 다리 슬개골이 약해졌고 요추 5번 디스크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 의사는 좀 나이가 들면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의 나는 얼굴이 창백했고 전신에 힘이 없었으며 하루종일 흐리멍덩했다. 월초에 받은 급여로 보름치밖에 안 되는 약을 샀고 중순에 더 구매해야 했다.

큰딸을 잃고 심장병에 걸려 늘 심장이 두근거렸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신기한 대법으로 고향에서 구도되다

큰딸이 살해된 이듬해 봄, 집에 찾아온 친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윈 날 보더니 파룬궁을 연마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연마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의 거듭된 권유로 아침에 파룬궁 연공장에 가보기로 했다.

그때는 아직 박해가 없어서 연공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젊은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선량했다. 그곳

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연공을 마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앉아 법공부를 했다.

생각밖에 법공부와 연공한 지 얼마 안 돼 온몸의 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계단을 가뿐하게 오를 수 있게 됐으며 온몸이 활가분해졌다. 옛날에는 자전거도 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매일같이 연공을 즐겼고 비바람과 눈비가 와도 어김없이 연공했다. 동료가 보고 “당신이 바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의 증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임대옥(林黛玉 - 소설 ‘홍루몽’의 연약한 여주인공)처럼 날마다 앓았는데 지금은 튼튼하고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우리 부부는 함께 대법을 수련했다. 그때 남편도 몸이 좋지 않았다. 위장병, 심이지장궤양, 요통,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수련한 지 얼마 안 되어 모두 나았다.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했다.

남편이 대법을 수련한 후 술과 담배를 모두 끊자 동료들은 믿지 않았다. 30여 년간 담배를 피웠고 술은 끼니마다 밥상에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에서 금연과 금주에 관한 설법을 들은 남편은 즉시 주머니에 있던 담배 한 갑을 꺼내 버렸다. 이렇게 단번에 모두 끊었는데 사부님의 법력은 정말 끝이 없다. 남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본 동료들은 모두 “우리 누구도 우 씨와 비교가 안 돼요. 그의 각종 수치는 젊은이들보다 좋아요” 라고 말했다. 확실히 여러 사람은 많은 적든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남편만 모든 게 정상이었다.

손해 보는 게 복, 혼탁한 세상의 청렴한 연꽃이 되다

손해 보는 게 복, 혼탁한 세상의 청렴한 연꽃이 되다

남편은 원래 후덕한 사람이라 대법을 수련한 후에는 더욱 눈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은 뒤로 미뤘다. 작업반에서 일할 때 종래로 남들과 비교한 적이 없고 항상 묵묵히 일하며 매일 칭찬을 받았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다들 질투하지만 그가 칭찬받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동료들은 그들 중 누구도 남편처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하자 남편은 탄압을 받았다. 공장에서 1년간 관찰하는 처벌을 받았고 그에게 매달 생활비를 200여 위안(한화 약 3만 7천 원)만 주었다. 그는 불평도 없이 그저 하던 대로 일했으며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도 했다.

동료들이 대신 분통을 터뜨리며 “선생님, 그만두세요. 겨우 고만한 돈을 받으며 왜 일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금의 공장은 책임자는 탐오하고 노동자들은 대충대충 일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본업에만 전념했다.

연말 모범사원을 선정할 때 모두 그를 추천했지만 책임자는 파룬궁(수련생)을 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모든 직원이 남편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뽑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파룬궁수련생이 모범사원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것이다.



2020년 12월 5일 대만 파룬궁 수련생이 중정기념당 자유광장에 모여 ‘法輪大法好 真善忍好’ 9자진언 인각을 새겼다.

천안문 분신자 류춘링의 많은 현찰이 수상하다며 이웃들이 의논하다

느린 화면 분석 : 류춘링은 화상으로 죽은 걸까, 맞아 죽은 걸까?

[중국 투고] 2006년 나는 장사하러 카이펑(开封)에 갔었는데 상대방도 여자였다. 내가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 뜻밖에도 상대방은 그 현장에서 가격으로 숨진 류춘링과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류춘링(刘春玲)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녀가 말했다. “외지인이었던 류춘링은 남편과 이혼한 뒤 어머니(양모)와 딸 류쓰잉(刘思影)을 데리고 카이펑에서 살았어요. 생활난으로 인해 화가 날 때면 늘 류쓰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했어요. 이웃들은 그녀가 불쌍했으나 고통받는 아이가 더 불쌍하다고 여겼어요.”

“나중에 그들 모녀를 며칠간 보지 못했는데 TV에서 그들이 천안문에서 분신자살했다며 또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스웠는데 저는 류춘링과 그렇게 가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는데 그녀가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말을 전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때 파룬궁은 카이펑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핑궈위안(苹果园) 구역에도 있었어요. 새벽같이 녹음기 음악을 들으면서 연마하는 할머니들은 길가에 늘 있었는데도 류춘링이 연마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당시 살아가기도 힘든 류춘링이 공을 연마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분신자살’이 가짜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구역 주민들은 남의 꼬임수에 빠져 해를 입은 류춘링이 정말 불쌍했어요.”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분신자살 후 며칠 뒤 경찰이 류춘링의 집을 수색할 때 나와 이웃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경찰은 류춘링 집에서 현찰 10여만 위안(추정)을 백 위안짜리 묶음으로 찾아냈어요.”

“이웃들은 류춘링이 그토록 가난한데 집에 웬 돈이 그렇게 많냐고 수군거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도 류춘링 모녀가 목숨과 바꾼 돈인가 봐요. 사람이 꼬임수에 죽었는데 그 더러운 돈을 또 당에서 가져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잡아먹고도 뼈마져 내뱉지 않는 격이지요!”



1. 류춘링 몸에 붙은 불길의 거의 꺼진 상태에서 2. 누군가 갑자기 물체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즉시 쓰러지는 순간 3. 길쭉한 물체가 빠르게 튀어 올라 그녀 머리 뒤로 수 미터나 날아가 다시 빠른 속도로 공중에서 떨어졌다. 4. 누가 가격한 사람인가? 느린 화면 분석을 통해 코트 차림의 한 남성이 그녀를 때리기 1초 전 가격하던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면에 이어서

손해배상금을 포기하고 대법으로 원한을 풀다

법을 배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인생의 참뜻을 깨닫게 됐다.

나는 대법을 얻기 위해 세상에 왔고 생생세세 윤회에서 수많은 업을 지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수련인 입장에서 이전의 고생과 어려움은 업을 갚은 것으로 나는 더는 마음이 쓰라리지 않았다.

6년 후 딸을 죽인 범인이 잡혔을 때 우리는 이미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었다. 시 중급법원이 우리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우리 부부는 의논을 거쳐 배상금을 포기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했다. “살인범에 관해서는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만 배상금은 그의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게 타인을 위해야 한다고 하셨기에 그 부모의 생활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배상금은 원치 않으며 일찍이 우리에게 빌린 1만 3천 위안(한화 약 213만 원)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생의 원한은 이번 생에 풀고,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은 판사는 수십만 위안을 요구해도 과분하지 않다며 “정말 배상을 포기하실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들은 대법제자는 정말 보통이 아님을 느꼈다. 결국 판사는 “파룬궁이라고 써 줄 수 없으니 당신들이 배상금을 포기한다고만 적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여 년의 수련으로 대법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었고 사람 됨됨이와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를 알려줬으며 더욱 높은 경지의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줬다. 이로써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고 사부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삼퇴’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기에 실명, 가명, 애명으로 모두 탈퇴 가능합니다. 봉쇄돌과 프로그램으로 탈당 사이트 tuidang.epochtimes.com에 접속해 ‘삼퇴’ 성명하시길 바랍니다.